兄弟宗族
朋友師生

二倫行實 全



二倫行實圖序

天生蒸民有物有則該而目之爲五倫撮而揭之爲三綱皆根於人心之所固有天理之所當然其曰倫曰綱非有二也

本朝三綱行實之書旣廣布中外人人皆知忠臣孝子烈婦之行爲可仰也莫不感激奮礪以興起其善心獨於長幼朋友二倫未之見焉今慶尙道觀察使金公諱安國嘗在政院入侍

經幄請撰二倫行實添續三綱以備觀感



上可之下禮曹令設局撰進
命未及行而公出按于南省囑前司譯院正曹
伸撰集歷代諸賢處長幼交朋友其行跡
可為師法者得若干人於兄弟圖附宗族
於朋友圖附師生紀事圖賛諺譯悉倣三
綱行實刊于金山郡請余為序余受而讀
之為之言曰書曰立愛惟親立敬惟長始
于家邦終于四海曾子曰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蓋敬長所以廣其悌也取友所
以輔其德也將使一國之人人人興於悌

以敬其長則風俗其不厚乎人人取其友
以輔其德則善人其不衆乎風俗厚則上
下安善人衆則治道進然則是書自當與
三綱行實並行於世為
聖朝教化之基本豈不美歟恭惟我
主上殿下聖智天縱日與賢士大夫討論經史
講劘治道莫不以教化為致治之先務公
能上體
聖意賦政之初汲汲焉編輯是書刊行州里以
扶植彝倫為化民之本而躬率礪師生以

考其德業旁搜孝行貞烈之卓異者聞于
上而旌表之又令慶州安東等五邑刊書籍之
有關於治道者凡十一其曰童蒙須知正
蒙養也曰口訣小學培根本也曰三綱二
倫行實明人倫也曰性理大全崇正學也
曰諺解正俗諺解呂氏鄉約正鄉俗也曰
諺解農書蠶書敦本業也曰諺解瘡疹方
辟瘟方救夭札也此雖未足以盡公之善
而然因此可以見公之學問抱負大有以
異於人也噫世之觀是書者其嘗以公之

心為心勉之哉正德戊寅三月日晉川姜渾書于晉之東臯村舍

二倫行實圖目録

兄弟

師生

元定對揭 五

위ㅅ나라공ᄌᆞ슈ᄂᆞᆫ션공이한님금의아ᄃᆞ리니태ᄌᆞ급이다ᄅᆞᆫ어믜게산사이요공ᄌᆞ삭이와ᄒᆞᆫ어믜게난형뎨라그어미삭이와쇄ᄒᆞ야태ᄌᆞᄅᆞᆯ주기고슈ᄅᆞᆯ쇄오려ᄒᆞ야사ᄅᆞᆷ으로ᄒᆞ야태ᄌᆞ와배타가다가므ᄅᆡ드리텨주기려ᄒᆞ거ᄂᆞᆯ슈말리디몯ᄒᆞ야조차그ᄇᆡᄅᆞᆯ타가니몯주기니라션공이나라히태ᄌᆞᄅᆞᆯ보내고도젹이ᄒᆞ야길헤가ᄃᆡᄌᆞ의긔ᄅᆞᆯ가거ᄃᆞᆫ보고



주기라혼대쉬가ᄯᅡ
말라ᄒᆞ야놀태저니
ᄅᆞ지아비명을ᄇᆞ리
면ᄌᆞ식의되아니라혼
대쉬ᄯᅩ조차가디니그
어미말니디몯ᄒᆞ야경
계ᄒᆞ야닐오ᄃᆡ앏셔디
말나ᄒᆞ더니쉬ᄯᅩ태ᄌᆞ의
긔롤아사앏픠셰고가
거놀도적이태지라너
겨주기니라태저미처
가보고제모ᄅᆞ주근줄
롤슬허ᄒᆞ울고주검믈
시러오다와져도손조
주그니라

衛公子壽者宣公之子太子伋之異母弟公子朔之同母兄也其母與朔謀欲殺伋而立壽使人與伋乘舟於河中將沉而殺之壽知不能止曰與之同舟舟人不得殺又使伋之齊將使盜見載旌要而殺之壽止伋伋曰棄父之命非子道也不可壽又與之偕行其母不能止乃戒之曰壽無爲前也壽又竊伋旌以先行盜見而殺之伋至痛壽代己之死涕泣悲哀載其屍還至境而自殺

詩 泛泛河舟同濟日 迢迢齊路竊旌時 自逢嚚傲鴒原惡 一去那堪見兩屍 人倫遭變力難禁 爭死悲懷兩不任 爲寫新編垂萬代 凜然天下弟兄心

복식ᄋᆞᆫ 하남 사ᄅᆞ
ᄆᆡ라 터ᄅᆞᆯ 지어 와 즘ᄉᆡᆼ
치기ᄒᆞ더니 저믄 아ᄋᆞ이
잇ᄉᆡ가 그 아이 ᄌᆞ라거
ᄂᆞᆯ 집 편디 ᄌᆡ물을 다
아ᄋᆞ 주고 다만 양 일
ᄇᆡᆨ가 모이ᄂᆞᆯ 복식이
가지고 뫼해 드러가
여라 ᄆᆞᆫ 히ᄅᆞᆯ 양 ᄎᆞᆫ 치
니 쳔여 마리 되엿실
집 ᄇᆞᆯ 딘 ᄆᆞᆯ 또 사니
그 아ᄋᆞᆫ ᄎᆡ 간 ᄂᆞᆯ 가ᄌᆡ
ᄆᆞᆯ ᄒᆞ고 잇ᄉᆞᆫ ᄃᆞ다시
ᄂᆞᆫ화 주니라



卜式分畜 漢

卜式河南人以田畜爲事有少弟弟壯式脫身出獨取羊百餘口田宅財物盡與弟式入山牧十餘年致千餘頭買田宅而弟盡破其産式輙復分與之

詩 世業遺財付友于脫身甘伴牧豬奴買宅何心吾獨富千頭分向弟家輸心雖刀爭利世紛紛誰念天親一體分他日佐時輸粟盡此心孝悌便移君

왕림이나히여라믄
인지거어대어다죽고
마초아시절이어즈러
워빅셩이다호더도
망ᄒᆞ고다믄왕림의
형뎨옷분못ᄃᆞ락ᄒᆞ더
셔우두믈그치디아니
터니아이나갓ᄉᆞ가뎌
ᄂᆡ산도족을맛나가
피여놀왕림이제뎌
니도족의게가비로
되내몬져죽거지라
ᄒᆞᆫ대도족이어엿세
너거노하보내니라



王琳字巨尉年十餘歲喪父母因遭大亂百姓奔迯唯琳兄弟獨守塚廬號泣不絕弟季出遇赤眉爲賊所捕琳自縛詣賊請先季死賊矜而放遣之

詩 四方多難亂絲如兄弟攀號獨守廬爲季投身先乞死豺狼安得不矜且人弟兄相愛即天彝急難誰知有此兒要識至誠無不感請看兇醜遣歸時

허무ᄂᆞᆫ회계원이쳔거
ᄒᆞ야벼슬ᄒᆞ이니처뒤채
두아이벼슬몯ᄒᆞ샤이시니
아올일홈너보쟈ᄒᆞ
야ᄂᆞᆯ오ᄃᆡ셰간논촌집
나살거지라ᄒᆞ고셰간
논세ᄀᆞ세ᄂᆞᆫ화됴ᄒᆞᆫ
집과됴ᄒᆞᆫ밧과됴ᄒᆞᆫ
죵을취위재다가지고
두아ᄋᆞ란사오나온거
슬주니ᄒᆞᆫ고을사ᄅᆞᆷ
다허무를탐셤타ᄒᆞ
고두아온ᄉᆞ양ᄒᆞ니이
디다ᄒᆞ리나ᄅᆞ로ᄒᆞ야
두아이다현가ᄒᆞ니
라그후에허뮈아ᄋᆞ
들모도고을ᄃᆡ블음



내사오나오ᄃᆡ 뫼슬ᄒᆞ
고ᄃᆞ아이나히즈라도
록벼슬몯ᄒᆞᄂᆞᆫ셔내
쉬관ᄂᆞᆫ화ᄂᆞ미리롱
올ᄃᆞ더니이제내가
뷔관세관블온게시
네로이해닙ᄂᆞ니다
소니라ᄒᆞ고다두아ᄋᆞ
롤주고ᄒᆞᆫ것ᄉᆞᄂᆞᆫ두지
아니ᄒᆞᆫ대모다일ᄏᆞ
더라.

許武建武中會稽太守第五倫舉爲孝廉武以二弟晏普未顯欲令成名乃謂之曰禮有分異之義家有別居之道於是共割財產以爲三分武自取肥田廣宅奴婢強者二弟所得並皆劣少鄉人皆稱武貪而稱弟能讓由是晏普俱得選舉武乃會宗族泣曰吾爲兄不肖盜竊聲位二弟年長未霑榮祿所以求得分財自取大譏今理產所增三倍於前悉推與二弟一無所留於是郡中翕然稱之

詩 廉孝從前舉豈誣臨財甘作一貪夫心期二弟名成後三倍貲財盡付渠下弟顯自從兄識日兄貪還釋弟榮時尋常友愛還誇俗隱德無嫌世所譏之

팅균이ᄂᆞᆫ임셩사ᄅᆞ미
라형이고ᄋᆞᆯ위니되야
싀ᄂᆞ믜쥰거ᄉᆞᆯ즐겨
받티니아ᄋᆞ이ᄌᆞ조간
ᄒᆞ야말나ᄒᆞ야도듣디
아니커ᄂᆞᆯ팅균이나가
셔ᄂᆞ믜일ᄒᆞ고삭바다
ᄒᆞᆫ희나ᄆᆞ치만히어더
다가형ᄋᆞᆯ주고닐오
ᄃᆡ이옷다ᄡᅥ도ᄯᅩ어더
둘거시어니와원되
얏다가장니죄로나
뵈인축도록몯ᄇᆞ리
라ᄒᆞᆫ대형이그말ᄋᆞᆯ
감동ᄒᆞ야쳥텸ᄒᆞᆫ
관원이되니라



鄭均任城人兄為縣吏頗受禮遺均數諫止不聽即脫身為傭歲餘得錢帛歸以與兄曰物盡可復得為吏坐贓終身捐棄兄感其言遂為廉潔

詩 取物傷廉恐累身愛兄誠意出天真已知切諫終無入甘自為傭受苦辛今傭得錢歸遺我兄包苴代此足嘗生坐贓一語開心病貪污終能變潔清

됴회시졀이어즈리운
쥭을맛나사ᄅᆞᆷ이서ᄅᆞ
자바먹더니아이도적
긔게잡펴ᄉᆞᆯ ᄒᆞ려커
ᄂᆞᆯ됴회듯고졔비여도
쥭긔게가ᄇᆞᆫ오지내아
리오래병ᄒᆞ야여위니
ᄂᆞᆯ만ᄉᆞᆯ지디못ᄒᆞ니
라ᄒᆞᆫ대도적이놀나
다노하보내니이ᄅᆞ되
가다시ᄡᆞᆯ미시여더오
라ᄒᆞᆫ대됴회ᄡᆞᆯ잇다
가못ᄒᆞ야다시도적ᄀᆡ
게가니ᄅᆞ고내ᄉᆞᆷ거
치라ᄒᆞᆫ대모다그이
히너겨ᄌᆞᆨ기지아니
ᄒᆞ니라



님굼이드르시고블
너벼슬ᄒᆞ이시니라

趙孝遭天下亂人相食孝弟禮爲賊所得將烹之孝聞卽
自縛詣賊曰禮久餓羸瘦不如孝肥飽賊大驚並釋之且
謂曰可歸更持米糒來孝求不得復往報賊願就烹衆異
之遂不害明帝聞其行召拜諫議大夫
詩遭時不幸暗傷神人化爲豺又食人自縛肥身甘代
弟野心猶感有天倫 野淸何處更求糒垂橐歸來願
就烹異行能回羣盜腹高名宜徹九天明

누욘이 져머서 아비 업고 형뎨 네히 ᄒᆞᆫ 셰간ᄒᆞ더니 각각 계집이둔 후에 모도 계집들히 난화다가 사져 ᄒᆞ고ᄌᆞ조 사홈ᄒᆞ논 아라 잇쉐 놈목숑이 ᄀᆞ장 애ᄃᆞ라ᄒᆞ야 문 닷고 ᄶᅦᄶᅦ를 티며 닐오ᄃᆡ 목용아 네 몸 닷ᄀᆞ 셩인니일ᄇᆡ ᄒᆞ몬 졍졍ᄒᆞᆺ 뽑쇽을 고티려 ᄒᆞ더니 엇디 그 집 드릴 ᄯᅢ 못ᄒᆞᄂᆞᆫ다 ᄒᆞᆫ대 아ᄉᆞ들히며ᄂᆞ리 져 지블 히 듯고 머리 조아 사죄ᄒᆞ야다시 화동ᄒᆞ니라



繆彤少孤兄弟四人皆同財業及各娶妻諸婦遂求分異
又數有鬪爭之言彤深懷忿歎乃掩戶自撾曰繆彤汝修
身謹行學聖人之法將以齊整風俗奈何不能正其家乎
詩早孤諸季與同居娶婦求分罪在予掩戶自撾能感
彼一家敦睦得如初　同氣捐分自責深能令諸婦便
回心是知友愛由天性蹀血相殘獸與禽

나츙이집이가난ᄒᆞ
야형뎨여ᄉᆞ시옷바블셔
ᄅᆞ니브미믹더니겨집배
ᄂᆞ마니츙이ᄃᆞ려닐오
지가난히사로미이러
ᄐᆞᆺᄒᆞ니편안티못ᄒᆞ니
닷티사라야ᄒᆞ티로다ᄒᆞᆫ
대니츙이거즛답ᄒᆞ
되술비즈라벗을과야
ᄋᆞᆷ들모도ᄭᅩᆺᄒᆞ리라ᄒᆞ
고몯거ᄂᆞᆯ니츙이ᄆᆞᆯ
다안존사뢰ᄒᆞ러서
의게ᄉᆞᆯ오ᄃᆡ이겨집이
시오나와나ᄅᆞᆯᄀᆞᄅᆞ쳐
어미와형뎨ᄉᆞ이ᄅᆞᆯ이
나게ᄒᆞ니그죄ᄂᆞᆫ내텰
거시이다ᄒᆞ고ᄒᆡᆼ죵



ᄒᆞ야무녀나가라ᄒᆞᆫ
대겨집이눈믈마
기고나가니라

李充家貧兄弟六人同衣遞食妻竊謂充曰今貧居如此
難以久安願思分異充偽酬之曰當醞酒具會請呼鄉里
內外充坐中前跪白母曰此婦無狀而教充離間母子兄
弟罪合遣斥便呵叱其婦遂令出門婦銜涕而去

詩 悍妻當日怨家貧不念鴒原骨肉親會合鄉閭揮婦
去割情全愛篤天倫　同衣遞食薈慇懃長托當年不
擬分何物婦人饒閒舌一心愈更切兢兢

강굉이ᄂᆞᆫ 셰가ᄉᆡ ᄉᆞᄅᆞᆷ
이라 아ᄋᆞ 즁ᄒᆡ와 계강
과 다 효도로 이ᄅᆞᆷ이 나
타나니 형뎨ᄉᆞ랑ᄒᆞ야 샹녜
ᄒᆞᆫ니블레 자더라 각각
겨집 ᄒᆞ야 조셔 ᄉᆞ랑ᄒᆞᆺ
샤 다ᄉᆞᆺ 가지 아니ᄒᆞ야
조식ᄂᆞ흘 겨셔 셰로
ᄆᆞ 다 방의 가더니 강굉이
계강과 ᄃᆞ토아 쥭기ᄅᆞᆯ
가 도적을 맛나 ᄃᆞ두기러
ᄋᆞ거ᄂᆞᆯ 형뎨 서로 ᄃᆞ토
거ᄂᆞᆯ 도적이 강굉을
니ᄅᆞ되 아이 뎜고 여러
히 ᄉᆞ랑ᄒᆞ고 또 당가 ᄅᆞᆯ
못드리시니 내 죽고 아ᄋᆞ
ᄅᆞᆯ 살아 지라 ᄒᆞᆫ대 게



강온날로디형이나됴
안코티ᄀᆞᆺ이ᄒᆞ야ᄃᆡ
희호골의사ᄅᆞ미며ᄂᆡ
희갑식이축거저ᄅᆞᆯ
ᄒᆞ대도족기ᄀᆞᆯᄒᆞ야
슈ᄒᆞ고날오뎌드ᄅᆞ
쳐인사ᄅᆞᆷ의어ᄃᆞᆯᄒᆞ게스
오ᄂᆞ와ᄀᆞᆫ개로골의
놓ᄒᆞᄒᆞ고다ᄇᆞ려고
려가

姜肱

姜肱家世名族與二弟仲海季江俱以孝行著聞友愛天至嘗同被卧及各娶妻兄弟相戀不能別寢以係嗣當立乃遞往就室嘗與季江適郡遇賊欲殺之兄弟爭死肱曰弟年幼父母所憐又未聘娶願自殺身濟弟季江曰兄年德在前家之珍寶國之英俊乞自受戮以代兄命盜戢刃曰二君賢人吾等不良妄相侵犯乃兩釋之

詩 二弟同居共一衾 天倫情至友于深 蒼皇遇賊爭投死 兩釋終能感賊心

弟恭兄友若塤篪 告寢猶更不忍離 更有至情難捨處 共看身死胃危時

왕람이어미다른형왕
샹이와ᄆᆞᆺ장ᄉᆞ랑ᄒᆞ더니
황람의어미쥬시왕샹
시ᄅᆞᆯ보채야티거든왕
람이두어셜ᄅᆞᆫ어ᄀᆞᆫ채뵤
고믄득울고가븟안더
니어른ᄋᆞᆫ되ᄡᅢ미산ᄋᆞᆼ미
를말니니그어미져기몹디
로미고치니다그어미조조
못ᄒᆞᆯ일로왕샹이ᄅᆞᆯ뵤
리거든왕람이조차가ᄂᆞᆫ
며또못ᄒᆞᆯ일로왕샹의
계집을보리거든왕람
의계집도조차가ᄂᆞ니그
니미셔러이너겨셔아니
ᄒᆞ더라또그어미마니
술에약플어왕샹이



ᄅᆞᆯᄂᆞ기려커ᄂᆞᆯ상람
이알고ᄃᆞ라가그술ᄅᆞᆯ
아ᄋᆞᆫ뢰왕샹이안ᄒᆞᆫ
술ᄋᆞᆯ알고가지고주더아
니ᄒᆞᆫ대그어미제가아사
업쳐ᄇᆞ리니라그후에
어미왕샹이ᄃᆞᆯ음식주
려든왕람이의식몬
져맛ᄇᆞ더니어미제아
들주ᄅᆞᆯ가ᄒᆞ야아니ᄒᆞ
ᄒᆡ다

王覽字玄通與兄祥友愛甚篤母朱氏遇祥無道覽年數歲見祥被楚撻輒涕泣抱持至於成童每諫其母其母少止凶虐朱屢以非理使祥覽輒與祥俱又虐使祥妻覽妻亦趨而共之朱患之乃止朱密使酖祥覽知之徑起取酒祥疑其有毒爭而不與朱遽奪覆之自後朱賜祥饌覽輒先嘗朱懼覽致斃遂止

詩 嚚母時時虐視兄看兒被撻痛兒情身同室婦代兄嫂共服勤勞應感誠 酖非好酒何宜飲兄弟爭持擧覆翻從此母猜兒輟試周旋母子竟全恩

유곤의 지븨 시긧병이
크러 두 형이 다 죽고 버근
형이 또 죽게 되야 병이
비아흐로 퍼디여셔 버시
며 아ᄋᆞ들히 다 되 졉나
거ᄂᆞᆯ 유곤이 혼자 ᄒᆡ엿
나가지 아니커ᄂᆞᆯ 어버시
며 형들히 구틔여 나라
ᄒᆞᆫ대 유곤이 니로ᄃᆡ 내
性이 病을 저티 아니ᄒᆞ고
親히 약ᄒᆞ고 친히 ᄒᆞ야 간
드리니라 뎌 밤셔며 자
디 아니ᄒᆞ고 관을 모지
보며 우르믈 그치디 아
니ᄒᆞ더니 쉬 여ᄃᆞᆫ 만의 병
셰도 그치며 십엿사
ᄅᆞᆷ도 드러오며 변ᄒᆞᄂᆞ



도ᄒᆞ도하 유곤이도ᄋᆡ
엽시라되 모다 닐ᄋᆞᄃᆡ
려든 ᄒᆞᆯ 샤이 사ᄅᆞᆷ
이 ᄒᆞᆫ 일의 못ᄒᆞᆯ 일
을 ᄒᆞ여 쳑운후에아
조ᄇᆞᆨ기 후에 ᄠᅥ러디ᄂᆞᆫ
알 너라 ᄒᆞ더니 이제야 보
니 ᄃᆞ역도 ᄒᆞᆫ염티 못ᄒᆞᆯ
ᄒᆞᆯ 알ᄅᆞ리라 ᄒᆞ더라

庾袞咸寧中大疫二兄俱亡次兄毗復危殆癘氣方熾父母諸弟皆出次于外袞獨留不去諸父兄强之乃曰袞性不畏病遂親自扶持晝夜不眠其間復撫柩哀臨不輟如此十有餘旬疫勢旣歇家人乃反毗病得差袞亦無恙父老咸曰異哉此子守人所不能守行人所不能行歲寒然後知松栢之後凋始知疫癘之不能相染也

詩 當憲楨看友愛眞撫亡扶病極勤辛十旬晝夜終無恙癘疫從知不染人

兩兄俱沒次兄危出次人人謹避之能守衆人難守處待看松栢歲寒時

왕밀이계아ᄋᆞ와아ᄃᆞᆯ
과ᄒᆞᆫ리고길ᄒᆞ가다가낭
시ᄀᆡ이엽허이ᄉᆞ와아ᄃᆞᆫ
을관우고귀ᄒᆞᆷ을뫼
ᄇᆞ이석벋라가ᄉᆞ다가와
ᄒᆞᆫ나아이도적의게ᄒᆞᆨ근
혀가고아ᄃᆞᆯ로도망ᄒᆞ
야수머사가거놀왕밀
이ᄀᆞ스ᄉᆞᆯ어더븓고
ᄃᆞ려굿ᄲᅦ하미리조아비
란난노형신적이다ᄒᆞ
색슬소망천마눈오직
ᄒᆞᆫ아ᄋᆞᆫ나더아니ᄒᆞ야죽
아비죽거ᄒᆞᆯ내걸려
ᄲᅢ아여만또ᄒᆞᆫ니나내
ᄒᆞᆫ건ᄀᆞᆯ오이아ᄃᆞᆯ로



하올밧고아지라ᄒᆞ거ᄂᆞᆯ
도적ᄃᆞᆯ히서르보ᄂᆞᆯ수
ᄒᆡᆼ아ᄃᆞᆯ로아ᄋᆞᆯ밧고
ᄆᆞ장셔지도라ᄒᆞ고다
주어보내니라왕밀이
후에주거ᄂᆞᆯ아이믈
며ᄭᅮᆷ도아니머그고도ᄂᆞ
홋쇠ᄒᆞ고심상올여
ᄉᆞᆺ히니ᄅᆞ니라

王密嘗與弟僑子元直西如涼州路中糧匱密留僑元直
西於途乞丐民間比還僑爲賊所掠元直逃還密乃將元
直追賊叩頭求哀曰人情自當皆愛其子但此弟未生家
君見背孤遺相長以至于今請以元直易僑賊相謂曰以
子易弟義之大也於是以僑元直還密而去密後亡僑勺
水不入口者五日鏤服喪期年而心喪六載也

詩 道出涼州乞丐歸旋聞阿弟賊中圍將兒換弟真情
切盜賊無知亦解悲 已親遺腹只斯人猶愛相憐着
一身苟保吾兒棄吾弟兒棄何以謂吾親

채확이형을셤교ᄃᆡ아
비ᄀᆞ티ᄒᆞ야집안의크며
쟉은일은다무른후ᄒᆞ며
비제녹도거슨다형
의게드려두고쓸ᄃᆡ잇
거든맛ᄉᆞ던사ᄅᆞᆷ의게
쳥ᄒᆞ야ᄡᅳ더다님금
뫼셔야갓혀블개질
나ᄒᆞ야무ᄉᆞᄒᆞ뎐듧옷
ᄌᆞ이져라ᄒᆞᆫ대뫼답
ᄒᆞ야유무ᄒᆞᆫ뎌ᄇᆞᆯᄒᆞ
즐ᄒᆞ여의ᄡᅬ하야더
ᄒᆞ노하쇼ᄒᆞ져줄ᄒᆞ
쟤이ᄂᆞ이가ᄂᆞᆫ리라
모다날ᄋᆞᆺᄂᆞ다



蔡廓奉兄軌如父家事大小皆諮而後行公禄賞賜一皆

入軌有所資須悉就典者請焉從高祖在彭城妻郗氏書

求夏服廓答曰知須夏服計給事自應相供無容別寄

詩奉兄如父敬無違家有尊長孰敢私擇賜盡應歸一

室事無專制必先咨　邑從滿丑谷求田妻求夏服寄

書杲計給只言存與者稍無欲意濟盡

손극이엄이셤기믈
지극히효도ᄒᆞ더니
셰주글제져믄아ᄃᆞᆯ을
손극의게도라셔ᄂᆞᆫ
효ᄀᆞ장ᄉᆞ랑ᄒᆞ야ᄒᆞ더니
호제사ᄅᆞᆷᄆᆡ군ᄅᆞᆯ내ᄃᆡ
니그아ᄒᆡ손극의족의
가다가못밋쳐ᄒᆞ니좌
슬져어늘손극이와
케삭ᄒᆞ쇄위 · [illegible]주請
도토ᄃᆡ며손극의겨집
허시도멀대이쳐극의
계촉ᄎᆞ야말ᄃᆡ보내
오ᄃᆡ그ᄃᆡ집게셔엿
더져문아ᄒᆡ게죄로ᄒᆞ
로료任이미죽을쳬그
되게맛ᄆᆡᄆᆡ든제집



리며ᄌᆞ식도업던은
이그ᄃᆡ는두ᄌᆞ식잇긔
나주근들무쉬시뉘
옷ᄉᆞ로ᄒᆞ더라ᄒᆞ고
을원이그ᄋᆡ글엇ᄌᆞ
와홀ᄂᆞ라ᄒᆞᆫ대로ᄎᆞᆫ
시고그집문의만보ᄂᆞᆫ
니라

孫棘事母至孝臨亡以小兒薩屬棘特深有愛時蔡民為
軍薩代棘行及後軍期應死棘薩爭死妻許氏又遣屬棘
曰君當門戶豈可委罪小郎且大家臨終以小郎屬君竟
未有娶息君以二兒死復何憾大守張岱表聞詔原之仍
榜其門

詩 弟兄爭死豈要名乃婦猶知棘死輕帝感三人倫懿
篤有全門戶又褒旌 兄念慈親鞠子衷弟思天顯竟
恭我當前斧鉞爭趨赴豈料金鷄放赦回

도련지의ᄉᆞ촌아ᄋᆞ장
빅의부親가亡ᄒᆡ세
후리여던뎌풀ᄅᆞᆫ갓거
놀오ᄃᆞᆫ재제빗돌무
라드리고자ᄇᆡ여다강계
ᄒᆞᆫ집ᄒᆞᆫ싸간의새터락고
울ᄲᅥ셔쥬븟ᄇᆡ술ᄒᆞ야
놀구티에창의계고ᄒᆞ다
ᄉᆞ양ᄒᆞ 쇼조상의ᄉᆞ마믈
마ᄒᆞᄉᆞ샹ᄒᆞ야죽후야
ᄋᆞᆯ주ᄂᆞ므야ᄂᆞ듯빗ᄉᆞ터야
너ᄒᆞ야므밧터무므리



揭揩與弟揩庠並敦義雍忠孝相事有如父子兄弟旦則
聚於廳堂終日相對未曾入內有一美味不集不會廳堂
間徃徃帷幔隔障為寢息之所時就休偃還共談笑揩年
老皆衰虞醉歸庠扶持還室仍假寢閤前承候安否揩庠
年逾六十並登台鼎而庠尚旦暮參問子姪羅列階下揩
不命坐庠不敢坐揩每適出或日斜不至庠不先飯揩還
然後共食食則庠親授匙箸味皆先嘗揩命食纔後食一
家之內男女百口總服同爨庭無間言

詩 揭家義讓篤天倫昆季嚴如父子親一味共分相對
笑藹然和氣滿堂春　六扶縣登仕郎司平盧義新題
何衆朝朝參問情無倦扶醉兄歸弟攙起

샹페산의양쥬이와양진이
와셔로곰프미어버이조차시
이슷터니형뎨아ᄎᆞᆷ이어든
대령의무다쥐모도무흔뉴
티안회드리갈다야녀ᄒᆞ며
흔토ᄒᆞ녹휴시ᄀᆞ이잇거ᄂᆞ
몰ᄒᆞ안ᄂᆞ먹지아니터라
매텽ᄉᆞ이쇠즘똥더위근
와두고잇다감가쉬고ᄃᆞ라
와말ᄒᆞ더라양쥬이ᄂᆞ해
늘거티ᄃᆞ르뎌가굴쥐
ᄒᆞ야오거놀양진이보ᄃᆞ라
졍뵈ᄃᆞ리표방아ᄂᆞ지려ᄉᆞ
후졈자며안부를묻더라
쥬과권과나ᄒᆞ여쥬ᄂᆞ마
다지생어되여시뎌양진
이오뤄러가참나죄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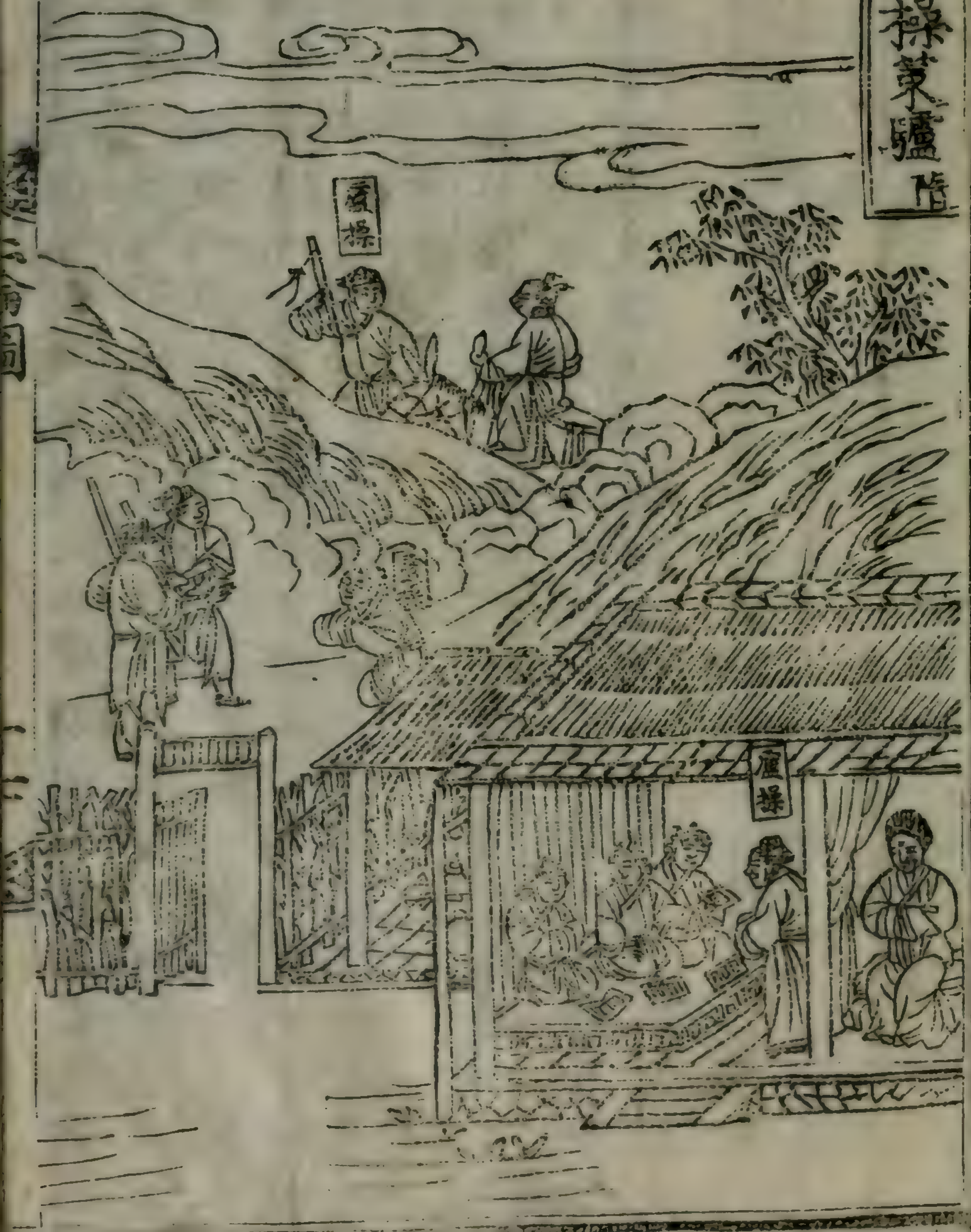


효렴드ᄂᆞᆫ조졍에며양츈사ᄅᆞᆯ
돌히셤아래ᄅᆞ려내시샷
티어양진이안ᄌᆞ라아니
ᄒᆞᆫ데양진이안ᄆᆞ야에티라
양츈에ᄭᅡ가셔져모도록ᄒᆞ야
내옹ᄒᆞᆫ양츈이바불못좁
더아니ᄒᆞ야양츈이온후에
양ᄎᆞᆷ내먹더라밥먹글
제양진이친히수져롤드
리며므져맛보고양츈이며
그라ᄒᆞᆫ수에야먹더라ᄒᆞ리
한칙엔진게집이월밧귀
ᄂᆞᆫᄒᆞ야면친당ᄋᆞᆯ히다ᄒᆞ
바배먹고사로셔소어예
잡마라입피라

吳逵之以從祖弟敬伯夫妻荒年被略賣江北逵之有田
十畝貨以贖之同財共宅郡命為主簿固以讓兄讓世業
田與族弟弟亦不受田遂閑廢

詩 那堪骨肉沒輿臺破產還投與共財職讓於兄田讓
弟天倫外物是塵埃 賣業慇勤贖弟還同財共宅住
飢寒世間無限爭田者聞都高風定汗顏

노좌계모댱시ᄅᆞᆯ셤교
더ᄆᆞ장효도ᄒᆞ더니쟝ᄉᆞ시
싀아ᄃᆞᆯ나하ᄒᆞ고ᄉᆞ랑ᄒᆞ
야노조ᄅᆞᆯ사ᄉᆞ이예박ᄃᆡ
ᄒᆞ라고세앙위ᄒᆞ야돗信
信ᄂᆞᆫᄒᆞ야든노조ᄅᆞᆯ부즈러니ᄒᆞ야
게ᄋᆞᆯ니아니ᄒᆞ니 ○ 이ᄯᆡ셔제아ᄃᆞᆯ
ᄒᆞ고도다보ᄂᆡ귀니ᄃᆞᆫ뢰와
노조ᄅᆞᆯ의식信고채자밤
좃ᄀᆞ더ᄒᆞ라ᄒᆞ더라
이술즐겨먹ᄂᆞᆫᄀᆞ과사
화ᄒᆞ고사ᄅᆞᆷ이져ᄀᆞ외어
미조하ᄉᆞ좃ᄂᆞᆫ거ᄂᆞᆯ노조
울고ᄃᆞᆯᄒᆞ야말고하군
대그사ᄅᆞᆷ들히셔르닐
호ᄃᆡ더기ᄃᆡ사니ᄒᆞ더니
이제도적놈이이런



진ᄒᆡᆼ을두ᄃᆞᆫ사오나여
흔ᄂᆞ귀ᄀᆞ레ᄒᆞ며울
타아ᄂᆡ토다ᄒᆞ고쉬ᄅᆞ나
조의기절ᄒᆞ고가ᄂᆡ탐ᄒᆞ여
미ᄎᆞ어순쉬아ᄋᆞᆫ미
가여ᄆᆞᄅᆞᆫ쥐ᄉᆞ랑ᄒᆞ옴
ᄋᆞᆯ가지도ᄒᆞ리라

盧操事繼母張氏至孝張生三子溺愛之命操常執勤主炊爲三弟設席操服勤不倦張遣其子讀書命操業驢隨之操即執鞭引繩如僮僕三弟耆酒縱佚抵忤於人致人踵門詬及其母操即涕泣拜而解之惡少相謂曰不意三賊有此令兄其可犯長者不義也相與拜操而去母亡訓養三弟恩愛不衰

詩 服勤爲弟事炊烹爲是阿孃愛所鍾又爲授師親執
策一心願弟克充膺 如何三弟性驕侈憂悖於人縱
酒時詬辱及親仍拜乞能令惡少釋然歸

당·광진이어버이셤기를
ᄆᆞ장지셩으로ᄒᆞᆷ이잇
더니엄이죽어ᄂᆞᆫ거상
ᄒᆞ야삼년을자·ᄃᆡ예ᄉᆞ니
드더라아ᄋᆞ광안이몬져혼게
집ᄒᆞ야ᄂᆞᆫ엄이집뫼ᄉᆞ일
은다맛처나광진이셜워
주ᄀᆞ근후에야개집어디
논광안비거집이ᄒᆞᆫ간
브티에글월와쳡ᄉᆞ비
ᄒᆞᆫ방좀몰셔열셔를다
형의거집의게보낸대
광진이도로브쳐고닐오되
아ᄌᆞ미마처ᄉᆞ어마님넘
기고또어마님이겨ᄉᆡ때
을맛ᄯᅳᆫᄒᆞ라ᄒᆞ시니ᄑᆞ티
디못ᄒᆞ리라ᄒᆞ고시ᄉᆞ로잡



李光進事親有至性母歿居喪三年不歸寢弟光顔先娶而母委以家事及光進娶母已亡弟婦籍滋蓄納管鑰於姒光進命返之曰婦逮事姑且嘗命掌家事不可改因相持泣乃如初

詩 當年新婦拜姑前主饋辛勤久且專今日母亡那忍改泣還家籍故依然　萬古天倫終不泯乖離只在利錙銖欲知兄弟相安處須看斯門反籍圖

두연이몬져ᄉᆞ식의게두아
ᄃᆞᆯ이이쇼ᄃᆡ어디디아니터
니계어미ᄂᆞᆫ하양의잇ᄂᆞᆫ
뎐시롤이러가고할미도
죽고두연이나히열다ᄉᆞᆺ
신제두형이사오나이되
렵ᄒᆞ야칼노머리ᄅᆞᆯ티니
ᄒᆡ두되야ᄒᆞ르거ᄂᆞᆯ아븨
누의숨겨계오사라나니
라하양의어미게가니뎌
의아비ᄇᆞ리디아니ᄒᆞ야ᄂᆞᆯ
ᄃᆞ니며가난ᄒᆞ야글
ᄡᅳ고갑바다머고사더
라후에벼슬ᄒᆞ야뫼셔고
모형이그쳐사랏쳐ᄒᆞ
쳡홈을마장위극이ᄒᆞ
미례다시ᄒᆞ티다두항



이여아븨누의어ᄃᆞᆯ솜아
빅ᄌᆞ손들히두연ᄒᆡ음
ᄃᆡ녀버ᄇᆡᆺ술ᄒᆞ니여러
히리라ᄒᆞ나ᄆᆞ녀ᄂᆞᆫ하
귀ᄒᆞ야남지계집을
흔ᄒᆞ니라

杜衍前母有二子不孝悖其母改適河陽錢氏祖母率衍年十五六二兄遇之無狀至引劍斫之傷腦出血數升其姑匿之僅而得免乃詣河陽歸其母繼父不容來孟洛間貧傭書以自資及貴甚長兄猶存待遇甚有恩禮二兄及錢氏姑子孫受衍蔭補官者數人仍皆爲之婚嫁

詩 兄心無狀母歸人引劍殘傷骨肉親出血數升無疾惡蒸蒸終化兩頑嚚　天心福善理昭明豈爲儒書致顯榮不獨子孫多受蔭一門婚嫁亦能成

댱존이본뎡이ᄎᆞ도롭
고동ᄉᆡᆼᄉᆞ랑ᄒᆞ더니일즉
혹이관고ᄋᆞᆯᄒᆞ야갓
싸가김ᄉᆡ머금의롤어더
와다집의자가피노타두
고형ᄋᆡ제무ᄉᆞᆺ으로ᄅᆞᆯ
히석기칙가라ᄒᆞ더니실
즉니로치형ᄃᆡ노ᄂᆞᆫ읍
받곤고안해와ᄒᆞᆫ가지노
의집사롬이니엇해ᄂᆞᆫ
의잡사ᄅᆞᆷ을돈쳑ᄒᆞ고
손발롤흉에ᄒᆞ리ᄒᆞᆫ
터라야음근에엇비터
겨삼젼ᄀᆞ지ᄃᆞᆫ년ᄃᆡᄒᆞᆫ
나토그릇되게아니ᄒᆞ히
라



張存布錦 唐

張存性孝友嘗爲蜀郡得綺繒文錦以歸悉布之堂上恣兄弟擇取嘗曰兄弟手足也妻妾外舍人耳奈何先外人而後手足乎收卹宗屬嫁娶窮嫠不使一夫失所

詩稟性於天篤友于從來不復念妻孥襟懷只見連枝
畫堂上文繒盡向輸　手足何如外舍人肯先家室後
天倫收卹孤嫠婚嫁畢誰能似子篤親親

뎡뎍귀아ᄉ뎍장이와ᄉ
랑ᄒᆞ야나지면ᄒᆞᆫ샹의니
뫼안ᄯᅩ바미면ᄒᆞᆫ니블셰
자더니뎍장이보되강직ᄒᆞᆫ
야노믜게할뎌주글졔곧
가뎌게ᄒᆞ야셰ᄂᆞᆫ뎍귀아ᄉᆞ시
거즛셔너브믈어엿ᄲᅵ니거
소겨닐오뎌뎨나로ᄒᆡ코
자ᄒᆞ니내가면반ᄃᆞ시ᄒᆞ려니
와비가면주글이라코즉
제뎌장ᄎᆞ야니거놀뎍쟈
이뽈와괄혜가형뎨셜
잠ᄭᅩ주그라가몸두토더니
뎌귀ᄆᆞ마ᄂᆞ소겨못가게ᄒᆞ
고밤ᄉᆞᆼ만즈릅길로수머니



게ᄂᆞᆯ뎌쟝이ᄯᅩ별와가니
뎌ᄆᆡ보ᄇᆡ속의드려주ᄂᆞᆫ
뎌니뎌쟝이듯고ᄆᆞᄎᆞᆷ내
위유ᄒᆡ내번거졀ᄒᆞ얏
ᄲᅡ가시야ᄲᅢ돌지여다가
뭇고두치ᄅᆞᆯ슈묘ᄒᆞ니더
앙ᄋᆞᆯ거든가막가치들
뎌ᄂᆞ라와가며사니ᄒᆞ더라

趙彥霄兄弟二人同爨十二年兄彥雲惟聲色博弈是娛生業壞已過半彥霄諫不入遂求析籍及五年彥雲之生計蕩然矣公私逋負尚千餘緡彥霄因除夕置酒邀兄嫂而告之曰向者初無分爨意以兄用度不節恐皆蕩盡俱有饑寒之憂今幸留一半亦足以給伏臘兄自今復歸中堂以主家務即取分書付之火管鑰之屬悉以付焉自言所少逋負以己儲錢償之兄初有慚色不從不得已而受之次年彥霄一舉登第鄉人大敬服之

詩 同爨曾經一紀餘可憐家業漸蕭疎無端析籍兄應悔再懶他年見火書　兄蕩家貲弟析居五年羸得有遺儲懃懃更酌元宵酒從此阿兄復主廬

됴언쇼의 형티 ᄒᆞᆫ지셰간
사ᄅᆞᆷ미 셜두 ᄒᆡ러니 형 언오
이 겨집 ᄒᆞ기ᄒᆞ여 풍뉴장거
바독 동ᄒᆞᆯ 줄 더 셰간 ᄉᆞᆯ귀
의 비야가거놀 션쇠 멀나 갈ᄉᆞ
되 듯지 아니 거늘 셰간 놀구
ᄒᆞ야 논화 나니 다ᄉᆞᆺ ᄒᆡ 만이
형의 셰간이 다 배야 고 ᄒᆞᆫ 자
당 ᄐᆡ 먹은 거시 ᄆᆞ장 만더 ᄀᆞᆫ
쇠 아춤 셔 놀의 형파 아즈
미롤 쳥ᄒᆞ야 술 먹이며 본
오 쥐ᄋᆞ려 셰간 순ᄒᆞ려 ᄒᆞ더
디 엽더니 형이 반가 로ᄋᆞ무
ᄒᆞ야 셰간이 다 배야면 몸ᄒᆞᄌᆞ
릴가 디ᄃᆞ ᄒᆞᆫ 거ᄉᆞ 너ᄒᆡ계
혀 셰간이 반만 잇ᄂᆞ니 즉ᄒᆡ
지 졀례 ᄡᅵ혀 시다 시 진여
와 셰간 놀자 ᄇᆞ라 ᄒᆞ고 아려
논ᄒᆞᆫ 글 현ᄃᆞᆯ 볼 ᄯᆡ 티 ᄒᆞᆷ



읫거슬다맛ᄃᆞ니라往니ᄅᆞ
되빗번곳도여뎨듕ᄒᆞᆫ
쳔량으로가ᄋᆞ려ᄒᆞ노라
ᄒᆞ대형시쳐엄의부ᄉᆞ
려다다ᄒᆞ다가마ᄋᆡ도ᄌᆞᆨᄒᆞ야
조초니라버근히에ᄒᆞᆫ어
숨퍼ᄒᆞ니모ᄃᆞᆫ사ᄅᆞᆷ이그
게곤경ᄒᆞ고창ᄉᆞ봉ᄒᆞ
더라

鄭德珪弟德璋孝友天至晝則聯几業夜則同衾被德璋
素剛直一日爲仇家陷於死罪當會逮揚州德珪哀弟之
見誣乃陽謂曰彼欲害吾也何預爾事我往則好狀白爾
去得不死乎即治行德璋追至道中兄弟相持頓足爭欲
就死德珪默計沮其行夜將半從間道逸去德璋復追至
廣陵德珪已死於獄德璋聞之慟絕者四負骨歸葬廬墓
哥墓每一悲號烏鵲皆翔集不去

詩 同衾聯几每相須不意剛剛陷罪誣視死如歸爭就
獄牽留道上泣相扶　夜半潛歸死獄中廣陵追至慟
何窮哥墓哀號處烏鵲飛翔慰悲衷

와도경의비뎐ᄉ조샹돌히
ᄒᆞ로도흠ᄒᆞ로일홈나모올회
텨ᄒᆞᆺ소당을ᄆᆡ오마라ᄉᆞᆸ니
그저긔도적이ᄂᆞ려나ᄇᆡᆨ셤
이다ᄃᆞ라나ᄉᆞᆷ거ᄂᆞᆯ도경이
아ᄋᆞ좌경이와ᄉᆞ당을ᄃᆡᄀ
ᄒᆡ고ᄀᆞᆺ쳐가ᄌᆞ피여도적이
아ᄋᆞ롤주기려ᄒᆞ거ᄂᆞᆯ협도
경이울며블오ᄃᆡ나ᄂᆞᆫ족
이조라거니와아ᄋᆞᆫ실약
ᄒᆞ고ᄌᆞ식이져므니내아
이모ᄅᆞᆯ주거지라ᄒᆞᆫ대아
ᄋᆞ도손을고블오ᄃᆡ내집
읫날을다형이출ᄒᆞᆫᄒᆞ
ᄂᆞ니내죽어디라ᄒᆞᄃᆡ나도
경이구틔여목글느리혀
내와다칼로ᄇᆡ히라ᄒᆞ며



도적이서로도라보고니
로ᄃᆡ너희효ᄌᆞ갸문에
형테이러ᄒᆞ니ᄎᆞ마엇디
해ᄒᆞ료ᄒᆞ고다노화ᄇᆞ리
니라

郭道卿四世祖以孝行著鄉里為立孝子祠元初盜起居民多走匿道卿與弟佐卿獨守祠不去俱被執盜將殺佐卿道卿泣告曰吾有兒已長弟弱子幼請代弟死佐卿亦泣曰吾家事賴兄以理請殺我道卿固引頸請刃盜相顧曰汝孝門兄弟若此吾何忍害兩釋之

居民畏盜競迸奔獨守先祠只弟昆孝行固知天所與首教兇豎害元孫人弟兄爭死意堪悲賊膽還寒引頸時兩釋只緣誠孝感芳名傳世永無期

곽젼이계모ᄅᆞᆯᄀᆞ장효
도ᄒᆞ더니계뫼세아ᄃᆞᆯᄒᆞ
하나져머잇ᄂᆞᆫ놀곽젼
이ᄂᆞᆫ조ᄇᆡ롬지어먹게미
ᄌᆞ라거ᄂᆞᆯ다계도얻나
ᄂᆞ니각각제간ᄂᆞᆫ화닷
사ᄎᆡ키놀팍쳔이멀
ᄂᆞ니가못ᄒᆞ야빗티ᄡᅵ집
이미긔물들ᄒᆞᆯ다사오
냐ᄉᆞᆫ거슬가지고계모를
모셔실오되도ᄒᆞᆫ차번
을업쳐아나더라



郭全事繼母唐古氏甚孝繼母生三子皆幼全窮耕以養旣長娶婦各求分財異居全不能止凡田廬器物自取荒瘠朽敗者奉唐古氏以居甘旨無乏

詩 喫著艱辛共備嘗一朝分異可堪傷薄田破器吾當取甘旨無違奉後孃　薛包孝義世稱賢豈料君身更兩全青史昭垂名不泯又從圖畫上新編

ᄉᆞ달의형뎨여ᄉᆞ시ᄉᆞᆸ비
명ᄋᆞ로ᄊᆡ간ᄂᆞᆫ화사티니ᄉᆞ
달이ᄃᆞᆯ닷유부되얏다가
사비죽거놀지비와ᄉᆞᆷ잣
ᄒᆞ고상ᄉᆞ몰도ᄉᆡ슬코어미
ᄃᆞ려ᄆᆞᆯᄒᆞ되우리형뎨다
티사간디ᄉᆡ라모ᄎᆡ니ᄉᆡ
러치ᄊᆡ간놀배ᄉᆞ이ᄉᆞ니
ᄒᆞᆫ어믜난ᄒᆞᆫ성이사오
나오여도ᄒᆞ미ᄯᅩᄒᆞ더사니
타ᄒᆞᆫ고ᄅᆞᆯ제재집의쉬
ᄉᆞ로빈낸것ᄃᆞᆯᄒᆞᆯ다갑
고다시모다ᄒᆞᆫ치사니두
어히못ᄎᆞ야셔집되예
느룹나모와버드남기
ᄒᆞᆫ되브러니여나거놀
사ᄅᆞᆷ이날ᄋᆞ되어디로



미날좌ᄒᆞ야그러타ᄒᆞ
더라

吳思達兄弟六人嘗以父命析居思達爲開平主簿父卒還家治喪事會宗族泣告其母曰吾兄弟別處十餘年矣今多破産以一母所生可使兄弟苦樂不均耶卽以家財代償其逋更復共居不數年宅後榆柳爲之連理人以爲義所感焉

(詩)曹承嚴命各分居憂樂參差十載餘泣告慈親辭感激弟兄和氣塞窮閭 一體而分六箇身悲歡饑飽豈宜偏捐財償債還相聚榆柳終看理亦連

류군량이비뒤로ᄒᆞᆫ뫼
사라륙촌형뎨동셩오ᄉ
뎌ᄂᆡ집산해ᄒᆞᆫ말발ᄒᆞᆫ자
김살사룸티시사니ᄒᆞ
뎨라돼졔오시가난귀ᄂᆞᆯ뎌
지비다차살나권ᄒᆞ며
발췟남긔가마피삿기
자리ᄲᅡᆺ쇼아노하사화ᄒᆞ
지지거ᄂᆞᆯ집의ᄉᆞ삼ᄋᆞᆷ이
환ᄃᆞᆺ시비기리니비집이
니ᄅᆞ지치졀로이셔즈리위
새도ᄒᆞᆫ뎌못시곤ᄒᆞᆷ을
예살ᄋᆞᆷ이여형톄가각
다ᄐᆡ사니ᄒᆞᆫ돌나마그ᄇᆞ
둘살고거집을내치며
닐오되네새지ᄉᆡᆯ을ᄒᆞ여
브리디니라형톄를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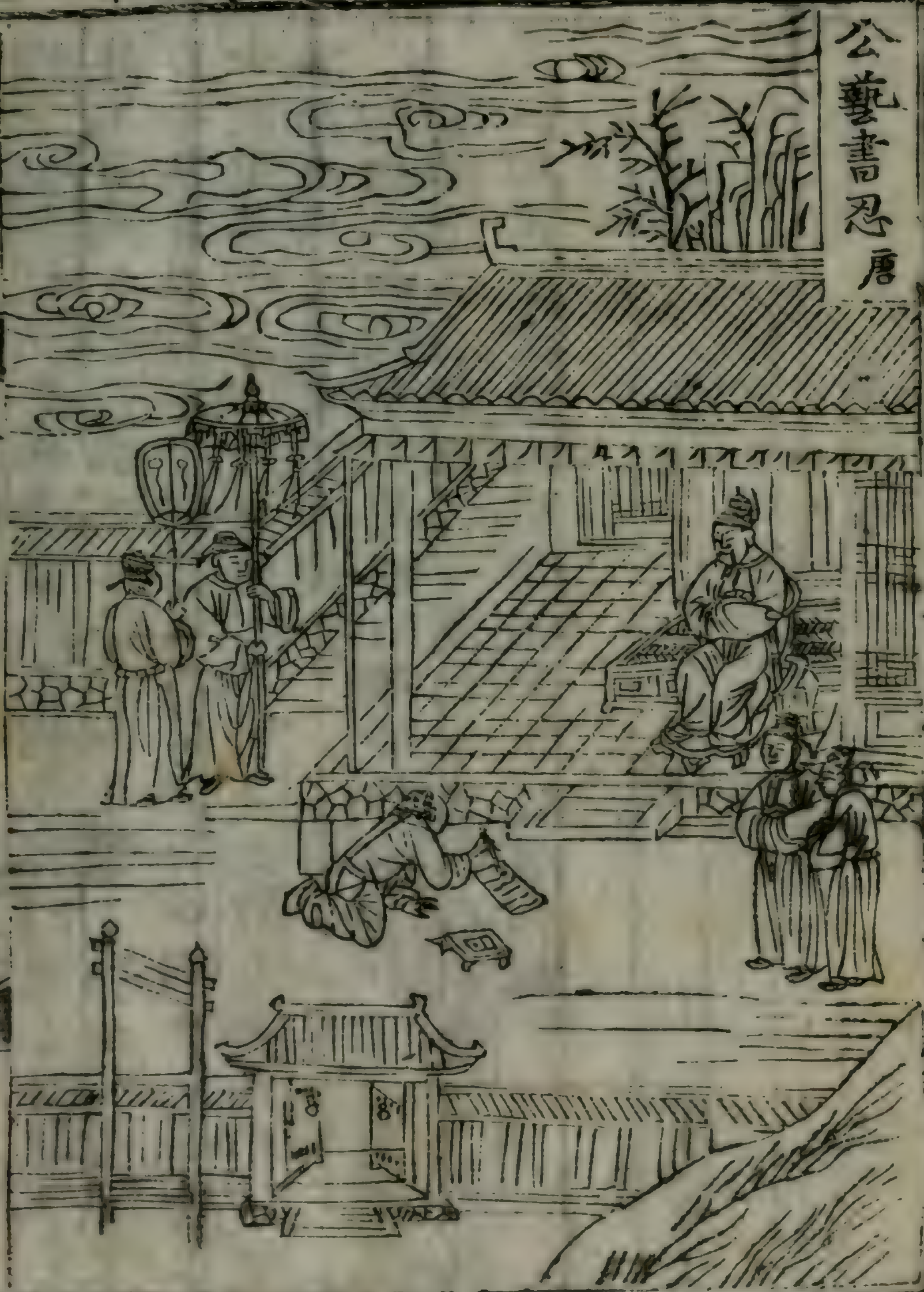
二倫行實宗族圖

리ᄉᆞᆯ며닐오고다신ᄂᆞᆫ
뎌사니나리히졍ᄉᆞᆼ홍
가이다

劉君良四世同居族兄弟猶同產也門內斗粟尺帛無所
私隋大業中荒饉妻勸其異居乃易置庭樹鳥雛令鬪且
鳴家人恠之妻曰天下亂禽鳥不相容况人耶卽與兄弟
別處月餘密知其計因斥去妻曰爾破吾家召兄弟流涕
以告更復同居貞觀六年表異其門閭

詩 世同產業更同居四代相傳不少踈一婦邪謀寧間
我從教兄弟復如初　斗粟其誰敢自私要同門內給
寒飢謟謟好貨私妻子視此如何不忸怩

댱공예아홉뉘롤ᄒᆞᆫ듸
살며여러님금이다졍
표ᄒᆞ샤나후에님금이비
봉나려샤다가그집의힝
ᄒᆞ샤공예롤블너보셔
그아ᄋᆞ들와화동ᄒᆞᆫ일
을무ᄅᆞ신대공예죠ᄒᆡ
ᄇᆞᆺ들주쇼셔ᄒᆞ여다담호
되됴히예ᄎᆞᆷ을인ᄌᆞ롤
일ᄇᆡᆨ나마써진샹ᄒᆞ니
라그ᄯᅳ데버프되아ᄅᆞ의
화동티아니호몬얼운
이옷밥을골오아니주
기나아래져ᄆᆞᆫ살ᄋᆞᆷ이례
졀리그ᄅᆞ기나서르외다
마다홈으로거ᄉᆞᆯ미되
ᄂᆞ니각각서로ᄎᆞᆷ으면



지빗일이ᄌ연히화
동ᄒ리라

張公藝九世同居北齊隋唐皆旌表其門高宗封泰山幸
其宅召見公藝問其所以能睦族之道公藝請紙筆以對
乃書忍字百餘以進其意以為宗族所以不協由尊長衣
食或有不均卑幼禮節或有不備更相責望遂為乖爭苟
能相與忍之則家道雍睦矣

詩 世人分割不同爐獨有張公九世居帝問由來能寫
道但將忍字百來書　禮嚴卑幼欽尊長衣食或
未均忍不出言相責望怡怡家道自相親

딘공이강쥐셔사더니여세
딕을훈더살며어론아
히모도와칠빅귀로딕
죵이며쳐을두디아
니코아래우히화동호
여스어몌잡알이업터
라디양밥머글졔큰집
의모다안자져믄아희란
난각별히돗샤라안치
더라가히일빅이나모
되효우유예밥주어효
가히나아니가인모든
가히다아니먹더라



陳競居江州自昉至競十三世同居長幼七百口不畜僕妾上下婣睦人無間言每食必羣坐廣堂未成人者別爲一席有犬百餘亦置一槽共食一犬不至羣犬皆不食

詩 七百餘人未忍分高曾叔姪曁仍雲十三嗣世同炊爨每食長筵列作羣 敦睦家風世所崇詵詵長幼一堂中欲知感化冥冥裏看取槽中百犬同

빙듕엄이지보롤앗세더
아니ᄒᆞ얀줄믈겨주되더
옥아ᄋᆞ향ᄒᆞ야후히ᄒᆞ더
니ᄲᅥ술노픠되야ᄂᆞᆫ고올
깃싸이도ᄒᆞᆫ밧이삼빅
믹술사의장운밍ᄀᆞ라몬
아ᄋᆞ의가난ᄒᆞ니롤이밧ᄉᆞ더
다ᄉᆞ춍애나하고어더니ᄒᆞᆫ나
흔줄회야ᄆᆞᄋᆞᆷ아라집기
슬서며드리던니ᄒᆞ나히ᄒᆞᆫ
ᄅᆞᄒᆞᆫ되곰먹고ᄒᆞᆫ히예
깁ᄒᆞᆫ길곰내피며남진계
집어리며상ᄉᆞ애다유여히
주더라저샹되야셔본향
고올히분ᄒᆞᆺ제가밧소애
어디보라ᄒᆞ니깁삼전필
뎐이ᄉᆞ쇄ᄂᆞᆫ시러ᄒᆞ야앙



과모올히이논살돔크거
나자ᄅᆞ나다려록ᄒᆞ야
그갑ᄉᆞᆯ흐더다주라코니ᄅᆞᆫ
오뎌아ᄉᆞ과모올들히뻐
의것라곤비화벼ᄉᆞᆫᄒᆞ거
든보고날도아깃거ᄒᆞᄂᆞ
니엇디가ᄃᆞ리오

范仲淹輕財好施尤厚於族人既貴於姑蘇近郭買良田
數千畝為義莊以養群從之貧者擇族人長而賢者一人
主出納人日食米一升歲衣縑一匹嫁娶喪葬皆有贍給
自政府出歸姑蘇焚黄搜外庫惟有絹三千匹令掌吏録
親戚及閭里知舊自大及小散之皆盡曰宗族鄉黨見我
生長幼學壯仕為我助喜何以報之哉

千畝良田豈自圖盡施宗族適親疎匹衣升食無他
貴婚葬相扶亦有餘　庫中搜得三千絹一日親知盡
散之聊報鄉閭助吾喜相公曾不念家私

陸氏義居 宋

ᄂᆞᆫ 쇠그집이여러대를ᄒᆞᆫ
데모다사더니민얼운ᄒᆞᆫ나
히지아비되ᄋᆞ셔ᄒᆞᆫ집일
긔걸ᄒᆞ야ᄌᆞ뎨ᄃᆞ려ᄒᆡ마다ᄌᆞ
뎨ᄅᆞᆯ골ᄒᆡ여논화집읫
일을맛뎌밧긧일ᄃᆡ예
공셰내며드리기ᄅᆞᆯᄒᆞ며
음식밍ᄀᆞ라손ᄃᆡ졉ᄒᆞ기
ᄅᆞᆯ각각ᄆᆞᄋᆞᆷ아라ᄒᆞ엿더니
ᄂᆞᆨ의ᄆᆞᄅᆞᆯ치며경계ᄒᆞᄂᆞᆫ
말노글지어새배니러읏
듬반이온ᄃᆞᆫ조졔도귀고ᄉᆞ
ᄃᆞᆼ의가뵌후에북치고
그글을외와들니더라
ᄌᆞ뎨허믈이잇기든읏듬
나니모든ᄌᆞ계ᄅᆞᆯ모도고외
다ᄒᆞ야ᄭᅮ짓치되고치디아니

거든티고내좃내파치지
못ᄒᆞ야두디몯ᄒᆞᆯ가시
브기ᄃᆞᆫ귀이예ᄇᆞᆯ네면
리내더리라

陸九韶其家累世義居一人最長者爲家長一家之事聽命焉歲選子弟分任家事凡田疇租稅出納庖爨賓客之事各有主者九韶以訓戒之辭爲韻語晨興家長率衆子弟謁先祠畢擊鼓誦其辭使列聽之子弟有過家長會衆子弟責以訓之不改則撻之終不改度不可容則言之官府屛之遠方焉

詩 劉户分門薄俗然義居陸氏寔堪傳區分職任由家長出納承迎禮罔愆 韻語丁寧是訓辭晨興擊鼓誦先祠罔知有教元無類誰敢將身蹈匪彝

댱문ᄉᆡ 그집이 열ᄃᆡ를ᄒᆞᆫ
듸 사라 모도 아이 빅마은나
문ᄒᆞ려니 ᄒᆞᆫ낫 돈 ᄒᆞᆫ잣 깁
도 아롬ᄃᆡ로 아니ᄒᆞ더라
댱문ᄉᆡ 죽거ᄂᆞᆯ 손ᄌᆞ 아
ᄋᆞ 대ᄒᆡ 니어 집 ᄎᆞᆺ일ᄆᆞ옴
아ᄅᆞ치ᄐᆡ 옥 엄경ᄋᆞ로 ᄋᆞᆫ혜
이 ᄇᆡ 집안희 ᄉᆞᆨᄉᆞᆨᄒᆞ야 구
ᄉᆡ 놉고 ᄀᆞᆺ더라 조ᄇᆡ 허믈 잇ᄉᆡ
든 비록 멀이 ᄡᅵ니라도 ᄯᅩ ᄒᆞ더
더라 며ᄂᆞ리 ᄒᆞᆨ 뗭ᄋᆞᆫ 미어든 뻐
쇄 대청에 안쳐든 모든 알 보ᄂᆡ
들히 미 못ᄯᅩ 존 ᄒᆡ 찬 더 튜ᄋᆞ
집의 ᄉᆞᆺ새 가 ᄎᆞ례로 ᄂᆞ라 가 텬
ᄒᆞ고 ᄉᆞ려 찬자 바 헌슈ᄒᆞ고
공ᄉᆞᄒᆞ야 ᄉᆞ맛 ᄯᅩ ᄒᆞᆫ ᄀᆞ 구븍
ᄒᆞᄂᆞ다 라 ᄂᆞᄂᆞ 고은 사ᄅᆞᆷ 론



차탄콤브려ᄒᆞ더라여ᄀᆞᆯ이
감아비근로워ᄒᆞ야셔동ᄋᆞᆯ
졔일개라ᄒᆞ야포샹ᄒᆞ니라며
鄭졍뎌ᄒᆞ야듕에며ᄂᆞᆺ치ᄂᆞᆯ
아니코의식주조가례ᄒᆡᆼᄒᆞᆫᄒᆞ
셔니조손이다ᄒᆞ도고ᄡᆞᆸ쎠더
라ᄋᆞᆫ든며ᄂᆞ리ᄃᆞᆫᄒᆞᆫ뎌집의
일ᄋᆞᆫ만히시고집옷ᄉᆞ릉ᄉᆞᄅᆞᆯ
챵예아니케ᄒᆞ티라집의두
ᄆᆞᆯᄅᆞᆯ두되ᄒᆞᆫ몰곳나가
면ᄒᆞᆫᄆᆞᆯ이음식아니머더
니쟉ᄆᆞᆯ이ᄒᆞ되감화ᄒᆞ야
그러라ᄒᆞ더가

鄭文嗣其家十世同居凡二百四十餘年一錢尺帛不敢私文嗣沒從弟大和繼主家事益嚴而有恩家中凜如公府子弟稍有過頒白者猶鞭之每歲時大和坐堂上羣從子皆盛衣服鴈行立左序下以次進拜跪奉觴上壽畢皆肅容拱手自右趨出見者嗟慕余闕為書東浙第一家以褒之大和方正不奉浮屠老子教必稽朱子家禮而行子孫從化皆孝謹諸婦唯事女工不使預家政家畜兩馬一出則一為之不食人以為孝義所感

詩

怡怡肅肅政連綿　十世同居二百年
伏臘壽觴遵禮教　傍觀嘖嘖嗟群賢
家法嚴恩冠浙東　不導釋老尚儒風
諸孫孝謹皆從化　畜物雖微亦感通

왕원박이ᄯᅵ를ᄆᆞ며밥
지어주디아니ᄒᆞ야집의사
ᄅᆞᆷ이일ᄇᆡᆨ이나ᄒᆞ되ᄉᆞ이예
말이업더라나랏모도ᄒᆞ
짐이며며ᄂᆞ리ᄒᆞᆫ믈로ᄒᆞᆫ되
모다ᄉᆡᆨ일ᄒᆞ야ᄒᆞᆫ고애더허
후공ᄒᆞ야곰동이간슈ᄒᆞ얏ᄒᆞ되
ᄯᅢ아히울어ᄯᅳᆫ몸은어미보
면조초아나젓먹이니ᄒᆞ여
ᄂᆞ리제어버의집의갈제아
시를두고가면모도ᄃᆞ늙
모다젓머겨아모아기제족
친줄을모ᄅᆞ더아기모아의
쳐어민줄을몰ᄋᆞᄃᆡ라원
백의형션목이죽거ᄂᆞᆯ
경의이ᄒᆞᆯ형의아ᄃᆞ리게
맛딘대그아ᄃᆞ리ᄉᆞ양ᄒᆞ야

元伯同爨 九

아자비ᄒᆞᆯ거시라ᄋᆞ외ᄂᆞ니
닐오ᄃᆡ바ᄉᆞᆫ등ᄒᆞᆫ족
이라ᄃᆡᄒᆞᆯ거시라서로오
래ᄉᆞ양ᄒᆞ다가나죵에아ᄌᆞᆫ
아ᄃᆞᆯ맛디니후에나라히
뎌이ᄃᆡ다ᄒᆞ야홍문셰니
라

王元伯四世不異爨家人百餘口無間言曰使諸女諸婦各聚一室爲女工畢歛貯一庫室無私藏幼兒啼泣諸母見者卽抱哺一婦歸寧留其子衆婦共乳不問孰爲己兒兒亦不知孰爲己母也兄宣伯卒卽以家事付姪執執辭曰叔父行也叔宜主之元伯曰姪宗子也姪宜主之相讓旣久卒以付執至元間旌表其門

詩 四世同炊不析居女工勤聚不私儲兒啼見者爭相乳不問阿孃大小姐　已矣兄亡可得追盡將家事付宗兒一門叔姪相推讓高義堪爲後世師

범식의댱원뵉과벗ᄒᆞ야
의와ᄒᆞᆨ블ᄒᆞ저후두치셔
라지나가려거이남을봐
ᄋᆞ오리ᄉᆡ샹날청ᄒᆞ고ᄀᆞᆯ
이갓가와오거놀원뵉이
차반ᄅᆞᆼ라지라ᄒᆞᆫ대어
이닐오ᄃᆡ두ᄒᆡ예ᄒᆡ여멀
니셔닐은만을엇디미ᄃᆞ
료ᄒᆞᆫ대원뵉이닐오되거
경은유신ᄒᆞᆫ샹ᄇᆡ라그
릇ᄒᆞ디아니ᄒᆞ리이다ᄒᆞ
야ᄂᆞᆫ어미닐오ᄃᆡ그러ᄒᆞ면
술비즈리라그날애과연히와
싱의게절ᄒᆞ고술머으니거
경은범식의자라후에원뵉
이병ᄃᆡ려쉬일오ᄃᆡ내주자사
쟈끠ᄂᆞᆫ벗ᄇᆞᆫ식을못보애라



ᄒᆞ고이옥고주그니범식이ᄭᅮᆷ
에원ᄇᆡᆨ이블너닐오ᄃᆡ거경아나
아모날주거아모ᄣᅢ송장ᄒᆞ
ᄂᆞ니날보셔아니져ᄃᆞᆫ미치오랴
라범식이ᄭᆡ드러가니블셔발
인ᄒᆞ야무들ᄯᅥᄒᆡ가ᄂᆞᆫᄃᆡ곽
이아니가거ᄂᆞᆯ그어미곽ᄋᆞᆯᄆᆞᆫ
지며므ᄅᆞ려두고보니흰ᄆᆞᆯ
메울고오거ᄂᆞᆯ이미닐오
뎌이반ᄃᆞ시거경이로다거경
와샹여ᄅᆞᆯ두ᄃᆞ리며닐오ᄃᆡ
니거라쉰빅아길히다ᄅᆞ
니이리ᄯᅥ혀자범식의곽
ᄋᆞᆯ자바ᄃᆞᆫ의니곽이가사
녀뎜놀거긔이셔무덤다
무뎜므ᄭᅩ고가니라

范式與張元伯並告歸鄉里式謂元伯曰後二年當過拜尊親乃共尅期日期將至元伯請設饌以候之母曰二年之别千里結言何相信耶對曰巨卿信士必不乖違母曰若然當醞酒至其日巨卿果至升堂拜飲巨卿式字也後元伯疾篤歎曰恨不見吾死友范巨卿尋卒式忽夢見元伯呼曰巨卿吾以某日死某時葬子未我忘豈能相及式便馳往赴之喪已發引既至壙而柩不肯進其母撫之遂停柩移時乃見素車白馬號哭而來母曰是必巨卿也巨卿既至叩喪言曰行矣元伯死生異路永從此辭式因引柩於是乃前式遂留止冢次爲脩墳樹而去

詩 千里相期二載餘眼青堂上見華裾壽觴共進淳春色始喜吾兒語不虛 白馬馳來是巨卿夢中相感亦丁寧攀號永訣柩還進誠信應通地下靈

루호의녯벗려공이
갈ᄃᆡ업서가시ᄂᆞᆯ루회
려공과ᄒᆞᆫᄃᆡ밥먹으며
루호의계집도려공계
집과ᄒᆞᆫᄃᆡ ᄂᆞᆫ머은새오
래거ᄂᆞᆯ쳐ᄌᆞ식이장
슨회이ᄒᆞ되니루회
술며쳐ᄌᆞ식을仔지
겨닐오ᄃᆡ려공은녯벗이
지나늙고궁박ᄒᆞ여내
게와의탁ᄒᆞᄂᆞ니ᄃᆡ접
ᄒᆞ여야올ᄒᆞ니라ᄒᆞ고
려공을죽도록이바
ᄃᆞ니라



樓護有故人呂公無所歸護身與呂公妻與呂嫗同食後護妻子頗厭呂公護流涕責妻子曰呂公故舊窮老託身於我義所當奉遂養呂公以終身

詩 故人投我為無歸義所當為不敢辭身勸呂公妻勸嫗一盤麁糲當甘肥　久寓人情生厭斁樓公垂涕責妻孥慇懃奉養終身世舊意從前誓不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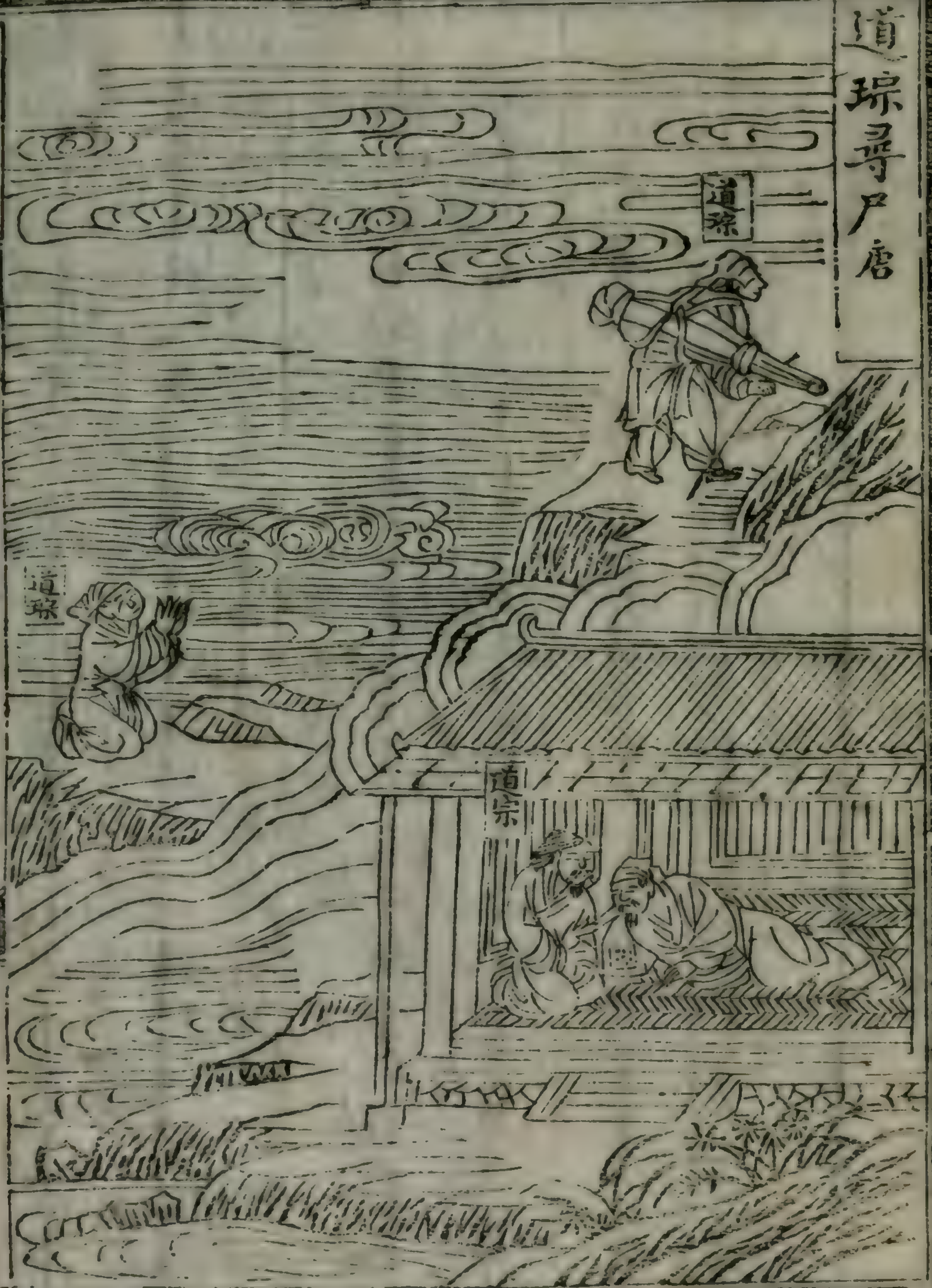
쵹나라댱예과군원
이되여셔쥐몬제양공
파사피더니양공이일
죽고ᄌᆞ식이두어신도
옷ᄒᆞᆫ셰ᄂᆞᆯ당에도려다가
집을ᄂᆞᆫ화사더니상
공의감이곤셤기되
내엄이곳리ᄒᆞ야양
공의ᄌᆞ식이ᄌᆞ라거
롤ᄂᆡ집얼의고집권
지며세갈주셔살게
ᄒᆞ니라



蜀國張裔先主以為巴郡太守少與楊恭友善恭蚤死遺
孤未數歲裔迎留與分屋而居事恭母如母恭之子息長
大為之娶婦買田宅產業使立門户

[illegible]火結金蘭著意長死生雖異義何忘撫孤將母皆如
已竟置田於使主張　友道由來貴不渝張公信義孰
能傳世間覆雨翻雲者見此寧無愧汗流

나도종이ᄆᆞᄋᆞᆷ이강개ᄒᆞ
고곳ᄃᆡ니텽권져ᄀᆡ의샹소
ᄒᆞ다가외다ᄒᆞ여난ᄃᆡ희귀
ᄒᆞᆫ가거니홈ᄭᅴ귀향가
여사괴ᄂᆞ니길헤가병ᄒᆞ
여주글제울고닐오ᄃᆡ사
ᄅᆞᆷ이주글거시여니와혼
자ᄂᆞᆫ외ᄯᅡ해ᄲᅧ롤ᄃᆡ디련
ᄃᆡ도종이닐오ᄃᆡ나곳도
라오면나종내그ᄃᆡ로혼
자예잇게아니호리라길
ᄭᅵ애못고갓ᄊᆞ가ᄒᆞᆫ치나
마샤나거ᄂᆞᆯ제맛초와
비와물이만커ᄂᆞᆯ므든ᄯᅡ
ᄒᆞᆯ일코도종이ᄃᆞᄅᆞᆷ에셔
우노라ᄎᆞᄌᆞ믈ᄀᆞᆯ가온대
셔ᄉᆞᆷ노ᄅᆞᆫ눈도ᄒᆞ거늘도



죵이닐오되주검곳이시
쎠든과시ᄅᆞᆷ놀라몯나
르니믈이솟ᄂᆞ솟ᄒᆡ늘
신톄ᄅᆞᆯ어더지여본향
의도라오니라

羅道琮慷慨尚節義貞觀末上書忤旨徙嶺表有司所相善者死荊襄間臨終泣曰人生有死獨委骨異壤耶道琮曰吾若還終不使君獨留此瘞路左去歲餘遇赦歸方霖潦積水失其殯處道琮慟諸野波中忽若湓沸者道琮曰若屍在可尋沸祝已水復湧乃得屍負之還鄉

許天涯同謫共辛酸委骨殊方泣自潸琮重臨終盟約在將身何忍獨生還
鷄書似與潦相期草奠江邊失所之一片丹誠天感應波中湓沸豈人為

오보안은곽즁상의촌
무온사람이라듕샹이
궁박ᄒᆞᆫ줄어엿ᄉᆞ비너겨
힘써천거ᄒᆞ여장셔긔
벼술ᄒᆞ이니후에듕샹이
되게자피여가김일쳔
필밧고야노하보내리라ᄒᆞ놀
보안이사비고ᄌᆡᄒᆞ되갑시
업서힘써ᄒᆞᆫ졈곤ᄒᆞ
여열ᄒᆡᆺ만의깁칠쳔
필어더되돈주고듕샹
을내여오니라후에듕샹
이어믜거상비쇼니올혀
내오보안의ᄐᆡᆨ의사라
나니이제어미즉을베틀
태로호리라그적의보
안이나가쥭고ᄀᆡ져도죽



어셔신쉐롤몯가져왓
셔놀듀샹이위ᄒᆞ여거
상니ᄇᆞ고ᄲᅧ주어티허신
벗고지여가송장ᄒᆞ고
삼년시묘살고보안의
ᄌᆞ식ᄀᆞ두려다가겨집얼이
고벼슬을주니라

吳保安郭仲翔里人也仲翔哀其窮力薦之表爲掌書記後仲翔被執於蠻必求千縑乃肯贖保安營贖仲翔苦無貲乃力居貨十年得縑七百卽妻蠻得仲翔以歸後仲翔居母喪及服除喟曰吾賴吳公生今親歿可行其志時保安客死妻亦歿喪不克歸仲翔爲服縗絰囊骨徒跣負之歸葬廬墓三年迎保安子爲娶妻而讓以官

詩 挾蠻乞救恨家貧力索千縑贖一身負葬服縗還守墓感恩終報再生人

滔滔盡是翻雲手千古稀逢信義中感激恩情期必報兩人高操激媮風

니면이져믄제가난ᄒᆞ여
나아ᄃᆞᆫ녀셔션ᄇᆡ로
과ᄒᆞᆫ쥬인에잇더니ᄒᆞᆫ
션ᄇᆡ병ᄒᆞ야죽을제은
金니면이주며닐오ᄃᆡ사ᄅᆞᆷ
이모ᄅᆞᄂᆞ니ᄂᆞᆷ의옷을남겨둔
의ᄡᅳ고나ᄆᆞᆫ거ᄉᆞᆫ그ᄃᆡ가지라니
면이그리ᄒᆞ리라ᄒᆞ고송장
ᄒᆞᆫ후에ᄀᆞ마니그은을관
아래녀코가니후에제집
사ᄅᆞᆷ이니면이로뵈라
가니니면이ᄃᆞ려가무덤
더러은을내여주니라



李勉少貧客梁宋與諸生共逆旅諸生疾且死出白金曰
左右無知者幸君以此爲我葬餘則君自取之勉許諾旣
葬密置餘金棺下後其家謁勉共啓墓出金付之
詩逆旅同棲幾苦辛臨終訣語忍堪聞死生付託無相
負高義千秋孰似君　葬君餘是爲吾物若取而歸是
負心密取餘金棺下置此心皎皎徹蒼臨

셔회의사피ᄂᆞᆫ양반이
쳐니벼폄아자남해원을
가거ᄂᆞᆯ아온벗ᄃᆞᆯ히치쳐
가보리업ᄉᆞᄃᆡ셔회ᄂᆞᆫ자
멀리하젼송ᄒᆞᆫ대쥐샹
권덕예날오ᄃᆡ남해원
젼송ᄒᆞ니외다ᄒᆞ되군엇
훈다셔회날오ᄃᆡ내벼ᄉᆞᆯ
못ᄒᆞᆫ귀의남해나로의ᄃᆡ
나이쳐ᄒᆞ마브려라ᄒᆞ더라
여공이나미게할터나가
녀ᄃᆞᆺ그리ᄒᆞᆯ거시엇ᄯᅡᆫ
ᄯᅢ그고ᄃᆞᆫ줄을말ᄒᆞᆯ롯ᄃᆡ
다니이관ᄉᆞ쉬회ᄅᆞᆯ천거
ᄒᆞ여감찰어ᄉᆞ히얻을가
ᄉᆡ뢰ᄒᆞᆫ뎐히서ᄒᆞᆫ즉조우
ᄀᆞ딤이관이ᄂᆞᆯ으ᄃᆡᄀᆞᆺᄃᆡ



양ᄋᆞᆫ님하ᄅᆞᆯ져ᄇᆞ리
디아니ᄒᆞ니나라ᄒᆞᆯ저
ᄇᆞ리실가ᄒᆞ더라

徐晦爲善揚憑得罪貶臨賀尉姻友憚累無往候者獨晦至藍田慰餞宰相權德輿謂曰君送臨賀誠厚無乃爲累乎晦曰方布衣時臨賀知我今忍遽棄耶有如公異時爲奸邪潛斥又可爾乎德輿歎其直稱之朝李夷簡遽表爲監察御史晦過謝問所以擧之之由夷簡曰君不負楊臨賀肯負國乎

詩自許相知舊布衣那堪遠謫送將歸一身有累何曾計送至藍田不忍離　相公推薦應非苟稱職終爲御史官不負相知寧負國高名一日上朝端

송나라사ᄅᆞᆷ사도ᄂᆞᆫ
갈제가난ᄒᆞ여길나기
못ᄒᆞ엿새술권당돈
허돈삼만놀모도와주니
길나가다가아븨벗뵈옹
의집의디나드니녀ᄋᆞᆯ의
주거셔송장못ᄒᆞ여그ᄯᆞᆯ
ᄅᆞᆯᄑᆞ리ᄒᆞ리커ᄂᆞᆯ사되
게살닛돈을다내여주
고婚ᄒᆞᄯᆡ를삼간ᄒᆞ이
니ᄒᆞ니라



查道淳化中初赴舉貧不能上道親族裒錢三萬遺之道出滑州過父友呂翁家翁喪無以葬母兄將鬻其女以辦襄事道傾橐中錢悉與之又嫁其女

詩
義重財輕見最明貧難赴選亦無營郡將親戚裒錢橐都為先人執友傾　元振今已可奈何唯謀鬻女不謀他橐錢傾與供襄事葬母埋兄濟一家

한억이와니약국이급뎨
못ᄒᆞ야신졔ᄯᅡ히난ᄎᆞ되니
ᄒᆞᆷ미쉬솔동당가쉬나
ᄒᆞᆫ닌권쉬ᄅᆞ졍승이되ᄃᆡ
라약국이ᄆᆞ져급뎨ᄒᆞ여
ᄯᅡ사완ᄒᆞ야각졔거집의
몰긴아ᄒᆞ고한억이며잠지
며고온못미처ᄒᆞ여쥼에ᄂᆞᆫ
ᄒᆞ여쉬볼ᄒᆞ며고올사ᄅᆞᆷ
이옥가져폐라ᄒᆞ고집에
ᄯᅡ문ᄒᆞᆫ이숙베와이잇ᄀᆡᄂᆞᆫ
반올한억이주고시ᄅᆞ간
끄ᄂᆞᆫ장ᄉᆞᆯ고개니ᄒᆞᆫ방애
한억이도급뎨ᄒᆞ여벼슬
참졍지며ᄒᆞ여ᄒᆞᆫ인ᄒᆞᆫ
기ᄅᆞᆯ그치지아니ᄒᆞ리라



韓億李若谷未第時皆貧同試京師每出謁更為僕李先登第授長社縣主簿赴官自控妻驢億為負一箱將至縣三十里李謂韓曰恐縣吏來箱中只有錢六百以其半遺韓相持大哭而去後舉韓亦登第位皆至參政為婚姻不絶

詩二子同時舉上都何嫌出謁迭為奴由來貧賤交尤密榮辱升沉兩不渝　自控妻驢赴縣時韓生猶復負箱隨分錢遺上相持哭後且連姻義莫虧

밤純인이ᄂᆞᆫ듕엄의안
라가ᄃᆞᆼ셤셔純인이ᄒᆞ여
ᄀᆞ초고올가밀조의셥을
비진ᄒᆞ여오라ᄒᆞᆫ대純인
이나히졈엇셔나도라올
재단양의ᄉᆞ셔만경이ᄆᆞᆯ
본대만경이날ᄉᆞ더내오
냐ᄂᆞᆫ두돌이ᄀᆞ되셰신ᄎᆡ
글ᄅᆞᆯ빌ᄉᆞ쇼ᄒᆞ여두고송장
ᄒᆞ고가려ᄒᆞ더니부러니
ᄅᆞᆯ저엄셰라純인이ᄎᆡ
밀시근운비켜바주고혼
쟈집의와아비뵈고옵셥
셜ᄉᆞ거노ᄅᆞ긔엄이보ᄂᆞᆫ녀
개가더ᄉᆞ보ᄂᆞ다純인이날
오더만경이쉐실ᄉᆞ송장
못ᄒᆞ여단양의셔무ᄅ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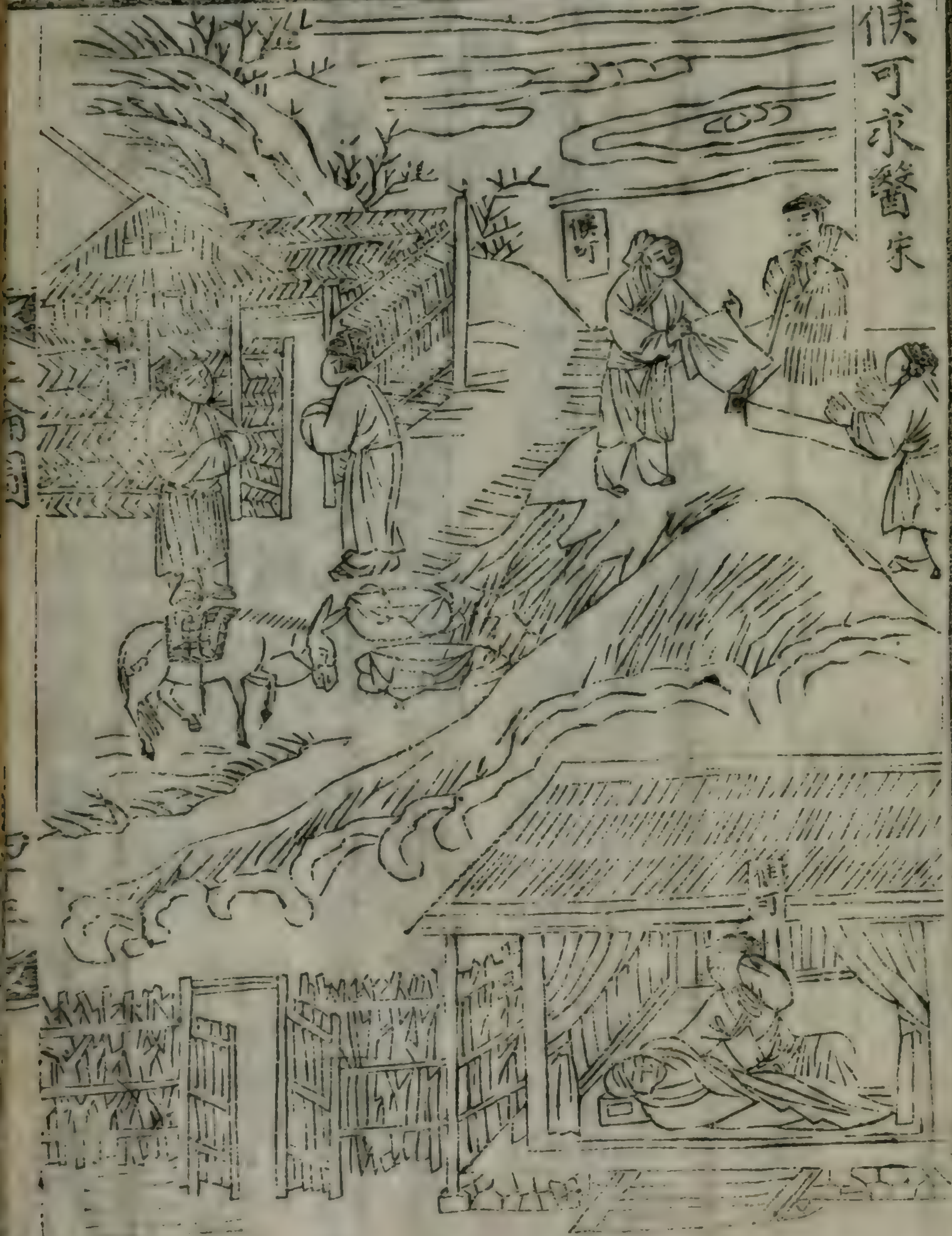


이제곽원진ᄀᆞᄐᆞᆫ사ᄅᆞᆷ
이업슨ᄆᆡ니ᄅᆞᆯᄃᆡ업셔
라ᄒᆞ더이다듕엄이닐오
ᄃᆡ보리ᄅᆞᆯ주디아니ᄒᆞᆫ다슌
신이ᄉᆞᆯ오ᄃᆡᄇᆞᆯ셔주니
이다ᄒᆞ더라

范純仁仲淹子也仲淹在睢陽純仁到姑蘇搬麥五百斛
純仁時尚少旣還舟次丹陽見石曼卿問寄此久何也曼
卿曰兩月矣三喪在淺土欲葬而北歸無可與謀者純仁
以所載麥舟付之單騎到家拜起侍立良久仲淹曰東吳
見故舊乎曰曼卿爲三喪未擧方留滯丹陽時無郭元振
無可告者仲淹曰何不以麥舟付之純仁曰付之矣

詩 誰教小范往姑蘇大范親提汗血駒撥到義拜輸老
子麥舟五百視錙銖 歸來侍立喜津津不問歸裝問
故人倘不麥舟付襄事玆行終是負嚴親

후개화원원을ᄎᆞ니져믄
쥐븟터신안이와사피더니
신안이병ᄒᆞ엿거ᄂᆞᆯ쳠니
예가의원어ᄃᆡ니도라오지
못ᄒᆞ여셔신안이죽어ᄂᆞᆫ
놀굼지아니커ᄂᆞᆯ사ᄅᆞᆷ이니
ᄅᆞ되후가ᄅᆞᆯ게도로노라
의원이ᄇᆡᆫᄂᆞᆫ다대렴ᄒᆞᆯ만
ᄒᆞ면오리라ᄒᆞ고ᄉᆞ오ᄋᆞᆯ로ᄂᆞᆫ
지나ᄂᆞᆫ얼ᄉᆞ모니라신안
이ᄌᆞ식업서ᄉᆞᆼ장못ᄒᆞ여
ᄒᆞ거ᄂᆞᆯ후개슈고ᄒᆞ여옷
ᄉᆞ라수표주어나쟝ᄂᆡ뎡
장ᄒᆞ니라후개비아ᄒᆞᄅᆞᆯ
치온쥐ᄒᆞᆫ옷니브고잇다
ᄒᆞ여은주리잇더니신안
의누의ᄌᆔ되로인ᄂᆞᆫ곳



ᄉᆞ린보고고은옷을주어념ᄒᆞ속
ᄒᆞ고ᄒᆞ니라ᄒᆞᆫ골로멀니나갓
다가오니집의쓸것업
세라ᄒᆞ야ᄂᆞ니아ᄎᆞᄆᆞ벗곽
형이와날ᄋᆞᆯ다려내아비병들
여의원의게고티라ᄒᆞ니돈
놀만히달나ᄒᆞ니내집을
ᄑᆞ라도못ᄌᆞ라리로다ᄒᆞᆫ
대후개ᄒᆞ여엿비너겨허여
보ᄂᆡ제집에온거시가의
ᄌᆞ랄가시브거ᄂᆞᆯ다주니
다

侯可為華原主簿少與申顏為友顏病董千里為求醫秦歸而顏死目不瞑人曰其侯君乎且歛而可至拊之乃瞑顏無子不克葬可辛勤百營鬻衣相從卒葬之方天寒單衣以居有饋白金者顧顏之妹處室舉以佐其奩具一日自遠歸家以宴告適友人郭行扣門曰吾父病醫邀錢百千賣吾廬而不可售可惻然詩橐中裝略當其數盡與之關中稱為賢

詩

辛勤千里遠求醫生死那知隔此時張目瞑時靈不昧鬻衣空相送終儀　郭生罄橐還貲意顏妹遺金更顧窮不負一心生死際華原高義薄層空

한시졀운창이ᄒᆞᆫ고을
오장이로스승사맛더니
왕망이오장이를주기
고오장의뎨ᄌᆞ일쳔나모
니을ᄒᆞᆫ당이라ᄒᆞ여
다금고ᄒᆞ야벼슬못ᄒᆞ
게ᄒᆞ니다곳텨다ᄅᆞᆫ니를
스승삼더니운창이쥐
착을말고내오장의뎨
ᄌᆞ로라ᄒᆞ고오장의신톄
를아나입관ᄒᆞ야송
ᄒᆞᆫ대셔울히일ᄏᆞᆺ더라
왕슌이에ᄃᆞ려니거쳔
거ᄒᆞ여듀ᇰ샹간태우
벼슬ᄒᆞ이니라

二倫行實師生圖

云敞自劾漢



漢云敞師事同縣吳章平帝時章爲博士王莽秉政章忤莽坐腰斬當是時章弟子千餘人莽以爲惡黨皆當禁錮不得仕宦乃盡更名他師敞時爲大司徒掾自劾吳章弟子收抱章屍歸棺斂葬之京師稱爲車騎將軍王舜高其節義薦爲中郎諫大夫

詩 吳章忤莽坐腰刑畏禁門人盡更名獨有先生能自劾斂藏骸骨荅恩情　式穀成人誨在師事三如一分當宣先生一舉扶名教此義須令學子知

환영이져믄제셔울
가글비화구가의잇논
쥬부를셤겨상셔를
비호ᄃᆡ가난ᄒᆞ야ᄡᅳᆯ것
업서샹해ᄂᆞᄆᆡ일ᄒᆞ여
먹고셔힘ᄡᅥ게을이
아니ᄒᆞ여열ᄒᆡ를집
의원보디아니터라마
ᄎᆞᄆᆡ쥬뵈죽거ᄂᆞᆯ환
영이분상ᄒᆞ여구강
의가ᄒᆞᆰ지여므덤ᄆᆡᆼᄀᆞᆯ
고인ᄒᆞ여셔글ᄀᆞᄅᆞ치
니톄져이뵈이가ᄒᆞ더라



桓榮少學長安習歐陽尚書事博士九江朱普貧寠無資
常客傭以自給精力不倦十五年不窺家園會普卒榮奔
喪九江負土成墳因留教授徒衆數百人

詩 生三事一理斯存世之隆儒孰知旨桓氏也能知此
義奔喪負土報前恩　食貧都下習書經十五年來力
致精尊寵竟蒙稽古力何曾一字忘先生

슈나라 [illegible] 나히어랴ᄂᆞᆫ
인제ᄒᆞᆫ고ᄋᆞᆯᄒᆞᆫ읫논악
온의게가글비ᄒᆞ더니
푸에악온이갸군하
묘외당ᄒᆡᆼ이되여가
게ᄉᆞᆯ견죄조차가ᄂᆞᆯ
모재븨ᄒᆞ더니쉬ᄋᆞᆯ
이여ᄒᆞ리쉬ᄒᆞ로와악온이다ᄅᆞᆯ
겨[illegible]
살[illegible]
악ᄀᆞᆺ악외신[illegible]ᄅᆞᆯ관슈
ᄒᆞ여가져오ᄃᆞᆺ가ᄯᅩ길
히도죽ᄀᆞᆫ난ᄉᆡᆼ롱온
다쥴아나고도적이곽
을헤ᄯᅦ내여ᄠᅳ려져실
견ᄃᆡ울고마나ᄒᆞᆫ대
도둑이이어ᄃᆡ리ᄃᆡ가ᄇᆡ



리고가이엘무잉흔 낙뫼랍

三國魏牽招年十餘歲詣同縣樂隱受學後隱爲車騎將軍何苗長史招隨卒業値京師亂苗隱見害招與隱門生史路等觸蹈鋒刃共殯斂隱屍送喪歸還道遇寇鈔路等皆悲散走賊欲斫棺取釘招垂淚請免賊義之乃釋而去由此著名

詩 當年從學在髫稚遇亂師亡最可憐冒刃斂屍還舊里蒼皇終不負吾師 道逢頑寇亂干戈史路先奔獨奈何一寸丹誠終感賊斫棺凶禍不能加

양시란션비명도션싱
의게도혹을비화왓샤
가션싱이죽단말ᄅᆞᆯ듯
표히위ᄋᆞ마라노코울고
ᄒᆞᆫ디비호단사ᄅᆞᆷ의게ᄂᆞ
무ᄒᆞ여알리니라후에
유작이와ᄒᆞᆷ쎄가이쳔
쳔션싱을뵈티니기쳔션
싱이눈곰표안잣거ᄂᆞᆯ
둘히뫼셔셧티니셔여
날오티그티니그저겨
시티나오ᄂᆞᆯ이졈그리
시너가쉬라ᄒᆞ샤문밧
긔나니눈이ᄡᆞ히ᄒᆞᆫ자
히러라



楊時得明道之傳而歸及聞其卒設位哭寢門而以書訃告同學者後與游酢同見伊川伊川瞑目而坐二子侍立既覺謂曰賢輩尚在此乎今既晩且休矣及出門外雪深一尺矣

詩學道歸來道已東山頹梁毁恨難窮寢門慟擗知天喪爲訃諸生共哭從　吾師之弟亦吾師却與游君共事之偶値先生瞑目坐雪深一膝不知疲

해원뎡의아비발이글
올만히봊ᄒᆞ야뎌시어곰
파쇼시겨셰와다시쳥
몽으로원뎡이울ᄒᆞ론
취날옵ᄂᆞᆫ이공조미옷
의바론줄목이라원뎡
이그ᄣᅳ들깁피아라임
ᄲᅧ조라삼골히며초리
믈티우졍치ᄒᆞ야셔
산의올라주뎌셰ᄒᆞ
몰먹고글허티라쥬
희의열흡을돗고가쓰
쳥삼오ᄂᆡ쥬희빈ᄒᆞᆫ
계승뉴리보고경ᄒᆞᆫ
ᄇᆞ날오메네논내울군
벼ᄯᅢ오뎌것의쥬에두져
못ᄒᆞ리로다ᄒᆞ고ᄒᆞᆫ삼



의안자글기픈ᄠᅳ들
논ᄒᆞ여밤즁의ᄭᅴ로
ᄃᆞ라ᄉᆞ방의션ᄇᆡ
홀사ᄅᆞᆷ을반ᄃᆞ시몬
져원뎡의게조차질
졍ᄒᆞ더라

蔡元定父發博覽群書以程氏語錄邵氏經世張氏正蒙授元定曰此孔孟正脉也元定深通其義既長辨析益精登西山絶頂忍飢食虀讀書聞朱熹名往師之熹叩其學大驚曰此吾老友也不當在弟子列遂與對榻講論諸經奧義每至夜分四方來學者必俾先從元定質正焉

詩 蔡公問學自家庭虗已尋師要道成勤苦西山通正脉紫陽初見亦應驚 力學精思素性存青年探討見真源晦庵叩學難爲友師道何慚一世尊

二倫行寔 終





